

서른여섯, 건재한 조코비치

프랑스오픈 최고령 우뚝... 카스페르 루드 3-0 완파 강철 체력·노련미 앞세워 메이저 男 단식 23회 우승



세계 3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사진)가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4960만 유로·약 706억 원) 남자 단식 정상에서 서머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자로 우뚝 섰다.

조코비치는 12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스페르 루드(4위·노르웨이)를 3시간 13분 만에 3-0(7-6(7-1) 6-3 7-5)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프랑스오픈에서 세 번째 우승한 조코비치는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23회 우승을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230만 유로다.

또 1987년 5월 22일생으로 이날 만 36세 20일인 조코비치는 남녀 단식을 통틀어 프랑스오픈 최고령 우승 기록을 새로 썼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대회에서 라파엘 나달(22회 우승·15위·스페인)이 세운 만 36세 2일이었다. 조코비치는 다음주 발표되는 세계랭킹에서 5주 만에 1위에 복귀할

전망이다.

자신의 10차례 단식 우승 중 9차례를 클레이코트에서 거둔 루드는 2년 연속으로 프랑스오픈 준우승을 차지했고, 지난해 US오픈에서도 준우승했다.

조코비치와 루드 모두 1세트부터 총력을 다하면서 타이 브레이크까지 가는 1시간 30분간의 접전이 펼쳐졌다. 루드가 특유의 스핀을 많이 먹인 포핸드 샷을 앞세워 조코비치의 첫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해 앞서나갔다.

조코비치는 게임 점수 2-4로 뒤진 상황에서 28차례 랠리 끝에 루드의 스매싱 실수를 유도해내며 첫 브레이크에 성공했다. 이어 다음 자신의 서브 게임도 가져가며 세트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세트 초반 다소 불안정해 보였던 조코비치는 타이 브레이크에서는 완전히 안정감을 찾고 7-1로 여유롭게 승리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흐름을 탄 조코비치는 2세트 루드의 첫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해내며 우위를 점했고, 게임 점수 2-0으로 앞서나갔다. 팽팽하던 3세트에서 조코비치는 루드의 6번째 서브 게임을 공격적인 포핸드로 따내 우승을 예감케 했다.

루드의 마지막 샷이 라인을 벗어나며 챔피언십 포인트를 따낸 조코비치는 한동안 흥분하듯 누워 메이저 대회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조코비치는 서브에이스(11-4), 위너(52-31) 등 대부분 지표에서 루드에게 앞섰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라이벌 '휴신' 라파엘 나달의 홈그라운드나 마찬가지로 롤랑가로스에서 제쳐 의미가 컸다. 이들과 함께 남자 테니스 '빅3'로 꼽히던 로저 페더러(스위스)는 지난해 은퇴, 20회에서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이 멈췄다.

조코비치의 23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은 남녀 단식을 통틀어서도 1968년 오픈 시대가 시작한 이래 공동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지난해 은퇴한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통산 23차례 단식 우승을 이룬 바 있다.

조코비치는 이제 1승만 더 올리면 오픈 시대 이전을 포함해 남녀를 통틀어 최다

메이저 단식 우승 타이 기록을 쓴다. 이 부문 최다 기록 보유자는 1960년부터 1973년에 걸쳐 24차례 우승한 마거릿 코트(호주)다. 코트는 13회를 오픈 시대 이전에, 11회를 오픈 시대에 이뤘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조코비치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카스페르 루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 훌케르 루네(덴마크) 등 젊은 선수들이 그보다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조코비치는 변함없는 '강철 체력'과 노련미를 과시하며 피동갑 후보들을 줄줄이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에 조코비치가 상대한 7명의 선수 중 피동갑 이상의 나이 차가 나는 경우가 결승 상대 루드를 포함해 4명이나 된다. 신기록을 향한 조코비치의 질주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유다.

올해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에서 우승한 조코비치는 7월에 열린 윌블던과 US 오픈에서도 거푸 우승하면 한 해에 모든 메이저대회를 석권하는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AP=연합뉴스

박병현기자 bhpark@skyedaily.com

김효주, 아쉬운 1타 차 준우승

LPGA 슌라이트클래식 13언더파 200타 기록

여자골프 세계랭킹 8위인 김효주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슌라이트 클래식(총상금 175만달러·약 22억7500만원)에서 준우승했다. 올 시즌 김효주의 최고 성적이다.

김효주는 12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글러웨이의 시부 베이 코스(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로 3언더파 68타를 때렸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00타를 기록한 김효주는 애슬리 부하이(남아공)에게 한 타 뒤진 2위로 대

회를 마무리했다.

전반을 2타 뒤진 김효주는 10번 홀(파4)에서 버디를 낚고 앞 조인 부하이가 11번 홀(파3)에서 타수를 잃으면서 잠시 공동 선두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12번 홀(파4)에서 쓰리퍼트로 보기를 적어냈고 부하이는 곧바로 13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2타 차 2위로 다시 내려갔다.

김효주는 17번 홀(파3)에서 2m 남짓 버디 퍼트로 막판 추격을 이어갔으나 부하이도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쟁겨 거리를 벌렸다. 마지막 홀 이글이 절실해진 김효주는 세 번째 샷에서 약 24m짜리 칩샷 홀인을 시도했으나 아쉽게도 공이 홀을 살짝 비껴갔다.

이로써 투어 통산 6번째이자 이번 시즌 첫 우승 신고는 뒤로 미루게 됐다.



AFP=연합뉴스

박병현기자 bhpark@skyedaily.com

한국 축구 미래 밝힌 김은중호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도전을 시작한 김은중호는 무관심과 부상 등 악재 속에서도 4위의 성적을 거둬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혔다.

김은중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FIFA U-20 월드컵 3-4위 결정전에서 돌풍의 이스라엘에 1-3으로 져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애초에 김은중호를 향한 기대치는 매우 낮았다. 부상도 김은중호를 괴롭혔다. 독일명문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미드필더이 현주와 올 초 U-20 아시안컵에서 활약한 공격수 성진영(고려대)이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다. 배준호도 근육 부상을 당해 조별리그에서는 제 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 '뿔짜기 세대'라는 평가까지 받



이승원(오른쪽 두 번째)이 12일(한국시간) U-20 월드컵 이스라엘과 3-4위전에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격려를 나누고 있다. 라플라타=연합뉴스

돌풍 이스라엘에 1-3패하고 4위 머물러

은 김은중호는 좌절하지 않았다. 무관심을 양반 삼아 더 단단한 팀으로 변화해나갔다.

김은중 감독의 단단한 실리축구가 빛났다. 상시로 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

표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조직력을 보여줬다. 주 득점 루트인 세트피스와 역습의 완성도도 높았다. 특히 김은중호는 대회에서 총 10골을 넣었는데, 그중 6골을 세트피스로 만들었다.

페널티킥 2골을 제외한 세트피스 4골 모두 킥이 정확한 이승원(강원)의 코너킥 프리킥 크로스에 이은 헤더로 뽑아냈다. 이승원은 3골 4도움을 올려 브론즈볼을 차지하며 2019년 이강인(2골 4도움·마요르카)을 넘어서는 맹활약을 펼쳤다. 이번 대회 어시스트 1위다. 한국 선수가 FIFA 주관 남자 대회에서 올린 최다 공격포인트 신기록이어서 이승원 개인은 물론 한국 축구사에 의미가 크다.

김은중호가 체력이 발목이 잡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소속팀에서 꾸준히 경기를 소화하지 못한 김은중호는 이탈리아전부터 힘에 부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 결국 후반에 연속골을 내줘 1-3으로 졌다.

김은중호 21명의 '리틀 태극전사'들은 FIFA 주관 대회에서 4강에 오르는 값진 경험을 했다. 나아가 A대표팀에서 활약하는 '진짜 태극전사'가 되려면 프로 무대에 자리 잡는 것이 우선 과제다. 이를 해내는 건 각자의 몫이다.

박병현기자 bhpark@skyedaily.com

BEYOND GOLF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